

# 아름다운 봄꽃 향연 만끽

## 임실군,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 5월까지 휴일 없이 임시 개장 운영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이 봄꽃들의 향연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아름다운 꽃들의 향연에 찬사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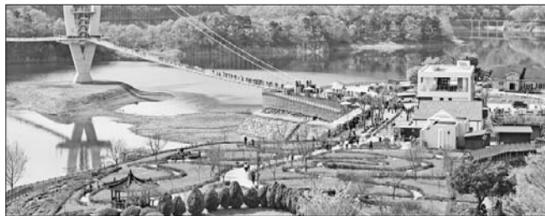
군에 따르면 벚꽃들이 개화 절정이 지나고 봄바람과 함께 꽃잎이 날리는 낙화의 아름다운 장면에 더해 붕어섬 생태공원의 봄꽃 경관에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옥정호 출렁다리 및 붕어섬 생태공원을 4월~5월 휴일인 매주 월요일도 불철 관광객 증가에 따라 휴일 없이 임시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인 11월부터 12월까지는 10시부터 17시까지이며, 입장 마감은 운영시간 1시간 전이다.

4월 중순이 지나면서 붕어섬 생태공원은 푸릇푸릇한 초록 잎들 사이로 꽃잔디들이 개화를 시작했고, 마치 꽃자주빛 카펫을 펼쳐놓은 듯한 풍경을 볼 수 있다.

옥정호 출렁다리를 건너기 전 붕어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이 봄꽃들의 향연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아름다운 꽃들의 향연에 찬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요산공원 꽃잔디.

섬 생태공원과 반대 방향으로 조성된 요산공원에도 약 4,000㎡ 면적의 화단에 꽃잔디가 식재되어 있다.

4월 꽃잔디의 종성한 개화를 위해 올해 붕어섬 생태공원과 요산공원에 2만여본의 꽃잔디 보식 작업도 완료했다. 꽃잔디 개화 절정에 이어 각종 철쭉들도 개화가 시작됐고, 수선화, 튤립 등이 붕어섬 곳곳에 피어있어 방문객들의 감탄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5월에는 작약꽃과 꽃양귀비, 6월에는 수국 등이 활짝 피어 시계절

꽃 나들이를 즐길 수 있다.

심 민 군수는 "지난 5월과 6월 옥정호 벚꽃축제에는 3만5천여명의 방문객들이 찾아주셔서 성공적인 축제를 치를 수 있었다"며 "보답하는 마음과 5월까지 아름다운 봄꽃들로 물든 붕어섬을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어 5월까지 휴일 없이 운영하니,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일상에 지친 피로를 풀고 심신을 달래는 힐링의 시간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소리관으로 재생하는 남원풍류'

## 남원시, 행안부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드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남원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드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소리관으로 재생하는 남원풍류'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고유 자산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브랜드를 구축해 시민이 살고 싶고 외지인이 찾고 싶은 매력적인 생활권 조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남원시는 그동안 로컬 브랜드를 위한 콘텐츠 발굴을 목적으로, 지역아카데미 '남원다움'을 중심으로 민간 예술가 및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등과 함께 워크숍과 연구회를 진행해 이번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통과 고유의 소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소리문화 콘텐츠 '남원풍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는 남원다움관 일원으로, 이 일대 옛 소금창고를 리모델링해 전통과 남원의 고유한 소리, 즉 판소리 및 삶의 소리, 자연의 소리 등 로컬의

소리 자원을 기반으로 한 소리 스튜디오 및 블랙박스형 공연 공간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지역 예술인과 주민, 민간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자생력 있는 콘텐츠 생산 거점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남원시는 판소리, 민간 소리, 자연 소리 등 남원 고유의 소리 자산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남원풍류를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로 개발 및 활용할 계획이다.

최경식 시장은 "남원은 전통예술과 소리 문화의 본고장으로서, 이번 로컬 브랜드 사업을 통해 남원의 정체성과 매력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해 나갈 것"이라며 "민간의 힘으로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남원풍류를 통해 지역 경제와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보건소는 지난 21일, 전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과 남원시의사회와 중증열성혈소판감소판증후군 지역사회 2차 감염 예방 및 관리 협업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 남원시보건소,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 간담회 가져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지난 21일, 전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단장 이주형)과 남원시의사회(회장 이광수)와 중증열성혈소판감소판증후군(SFTS) 지역사회 2차 감염 예방 및 관리 협업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5일 관내 첫 SFTS이 발생함에 따라 의료인들의 환자 혈액과 체액에 의해 발생하는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진드기에 물리지 않은 SFTS 2차 감염자는 총 30명이며, 이 가운데 의료인이 27명으로 병원에서 SFTS 환자나 의심환자를 진

단·치료하는 과정에서 감염됐다고 밝혔다.

또한 SFTS의 역학적 특성 및 관리 방안 주제로 의료인이 지켜야 하는 예방수칙, 환자 조기인지 및 적기치료를 위한 임상적 의심과 신속한 감염병 발생 신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외활동 후 참진드기에 물린 것을 알지 못하고 발열과 소화기 증상으로 가볍게 지나칠 수가 있기에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하며, 환자의 30%정도는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결과를 보이므로 전문이나 상급병원으로 신속한 의뢰가 필요한 실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 등

### 순창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순창군이 군복무 중인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등 다양한 형태로 군 복무 중인 순창군 청년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자력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별도의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보험이 제도화된 직업군인·사회복무요원 등은 제외된다.

보험 보장 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5천만원, 상해·질병 입원 일당, 뇌졸중·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외상성절단진단비 등 총 14종에 이르며, 타 제도와 관계 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콜센터(070-4693-1655, 070-8892-3786)이나, 팩스(070-4758-8556) 또는 이메일(al8897751@hanmail.net)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왕원 기자

### 임실군,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본격 추진

임실군이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적도의 정확성을 높이고, 지적 정보의 최신성을 확보하여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은 도곽 및 행정구역 간 개별지적점합 오류 필지 등 경계 정비가 필요한 필지를 정밀하게 측정·보완하는 사업으로,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토지 관리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적도 등록 사항을 정비하고 불일치 지역의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정확한 지적 정보 제공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반"이라며 "이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지적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 채계산 유채꽃 축제 개최

## 26-27일 먹거리·볼거리·즐거거리 풍성

순창군 적성면에서 봄의 향연을 즐길 수 있는 '제3회 순창 채계산 유채꽃 축제'가 이번 주말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개최된다.

적성면 채계산 출렁다리 주차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노란 유채꽃 물결과 함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적성솔로공동체위원회(위원장 양병용)가 주관하는 행사는 건강한 농촌음식과 자연속 휴식을 주제로 개최되며, 첫날인 26일 오전 10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축제의 막이 오른다. 축제 첫날에는 개막식에 이어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과 지역 농가에서 준비한 건강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는 농가밥상 시식체험, 그리고 오후에는 초청가수의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둘째 날인 27일에는 '섬진강로슬로 걷기 대회'가 열려 섬진강 구남마을 구간을 왕복하는 5km 코스를 함께 걷는 시간을 함께, 오후에는 '제1회 순창 채계산 유채꽃 가요제'가 열려 축제의 흥을 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축제 기간 동안 상설 체험 행사로 친환경 공예, 캘리그래피, 전래놀이, 자전거 타기, 카누 체험(예약제) 등이 운영된다. 더불어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 먹거리 장터, 체험 부스 등도 함께 마련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순창=이왕원 기자

# 남원시, 재정집행 평가 '도내 1위'

남원시가 2025년 1분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도내 14개 시군 중 1위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2.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신속집행 대상액 5,021억원 중 1,820억원을 집행해 정부에서 설정

한 목표인 1,536억원보다 284억원을 초과 집행하였으며, 대상액 대비 집행률 36.2%를 달성했다.

또한,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비·투자 부문에서도 목표액 901억원 대비 989억원 초과 달성한 999

억원(110.8%)을 집행하며, 높은 집행률을 보여 최우수 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그동안 꾸준한 집행상황 일일보고와 매 주 점검회의 개최 등 집행을 제고를 위해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집행 능력을 인정받았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